

# 르네상스시대의 복식 유형과 그 발생배경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순홍

## 目 次

I. 서 론	1. 시대적 배경
II. 르네상스시대의 역사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III. 르네상스시대의 복식 유형과 특징	V. 결 론
1. 복식유형	참고문헌
2. 특징	ABSTRACT
IV. 복식유형 형성의 배경	

## I. 서 론

복식문화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예술 등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美와 권위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고 당시의 국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도덕, 종교, 법률 등 諸 환경적 요소의 제약을 받아 양식화되고 규격화되면서, 복식은 무수한 변화의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복식은 인간의 내적표현일 뿐만 아니라, 복식의 양식이 결정지어진 그 사회의 모든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神本主義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세의 복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人本主義 사상에 입각한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의 복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원래 「Renaissance」란 프랑스어인 「Renâtre」란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재생」또는 「부흥」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그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Rinascita」

로부터 유래된 것이다.<sup>1)</sup> 르네상스란 말을 처음으로 역사상의 개념으로 이용한 것은 그 후 프랑스의 史家인 미歇레(Jules Michelet, 1798~1874)가 그의 大著 「프랑스사」에서이며 단지 古代學藝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관계의 간신과 발흥 등 환경의 확대를 포함한 일체의 문화개념과 역사개념으로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중세적 질서로부터 근세적 질서의 추이를 역사상의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오랜 중세의 현실부정에서 오는 神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을 긍정하려는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계몽사조에 의해서 강화 확대된 관념을 이어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8세기 볼테르나 블테르 이전의 저술가들이 15세기와 16세기초의 이탈리아를 문학적, 예술적인 면적의 시대로 구분하여 “재생”이란 용어를 쓰면

\*이 논문은 199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조경래, 「서양 근대사」, (서울 : 일신사), 1990, p.17.

서 인문주의시대라고 보아왔던 것에 비하여, 19세기의 역사가들은 보다 넓은 의미로 인식하였는데 르네상스를 중세의 종지부를 찍고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 인간활동의 여러 분야와 인간정신자체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대라고 보았다.<sup>2)</sup> 또한 퍼거슨(Ferguson)은 르네상스를 매우 잘 정돈된 형태의 문명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문명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특징지어진 한 시대로서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로 특정의 성격과 고도의 문화적 활성을 소유하고 있는 한 시대로 보고, 이 시기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표현으로는 주로 봉건적 교회적인 문명, 그리고 경제적 기반으로는 주로 농업적인 문명으로부터 국가적, 도시적, 세속적인 문명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대라고 하였다.<sup>3)</sup>

Renaissance시대를 대개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까지를 말하지만 Renaissance 경향이 복식에 나타난 것은 15세기 말부터이다. 북유럽에서는 Renaissance가 16세기에 시작되므로 유럽안에서도 지역간의 다소 차이가 있게 되며 국력의 성장과 유럽문화의 중심이동에 의해서 패션의 중심지도 이동하였다.

르네상스는 어느 시대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생활에 관한 많은 문제가 어우러져 복식을 자극하였고, 복식은 많은 발전과 더불어 가장 넓은 관심을 환기시키는 대상으로서 부각되어 왔다. 비록 이것이 짧은 시기의 특정한 복식관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모드(mode)의 발생, 귀족복에서 시민복으로의 力點의 이행,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의 전환 등 현대복을 결정짓는 많은 조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다.

의복의 고찰이란 형태중심으로 외관상으로만 보아서는 추정한 시대적인 의복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식의 특징과 그 발생배경을 관련시켜 시대적인 특수한 의상관이 나오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치·경제·예술·복식사 분야의 문헌이나 회화, 초상화, 박물관에 보존된 유물, 조각 등을 토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르네상스시대의 역사적 배경

### 1. 정치·경제적 배경

중세의 봉건제는 당시의 생산의 주요수단이었던 토지가 봉건영주의 수중에 있으므로, 대다수의 국민은 소규모의 농업과 수공업과의 기내적 결합을 기초로 하여 농비(農奴)로서 생산에 종사하였으며, 여러 경제외적 강제의 권력 내지 무력에 의해 인격적 종속상태에 있었다.<sup>4)</sup>

그런데 도시의 발달에 따라 화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 영주는 농비에게서 받던 지대를 생산물에서 화폐로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화폐 경제에 의해서 전통적인 경제체계가 파괴되고 근대적 자본주의의 형태에 입각한 산업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상업과 공업은 그 질과 양에 있어 크게 변화하고 도시민의 역사적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공업의 발달은 시민계급을 등장하게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되던 계급이 분해되면서 개개인의 자각심을 일으키게 하여 현세를 살리려는 의욕을 증진시켜 시민계급이 대두되었다.<sup>5)</sup>

르네상스운동은 도시의 상업의 부활이 가장 빨랐던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으며, 십자군 운동 이후 지중해를 무대로 세계상업이 활발하여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밀라노, 피렌체 등의 도시가 엇따라 발달하였다. 이러한 도시들은 많은

2) M.P. Gilmore, 지동식 외 역, 「르네상스의 의미」, p.285.

3) Sidney A. Barrel, 임희완 역, 「서양 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이데아 충서 10, (서울 : 민음사), 1992, p.25.

4) 羽仁五郎, 「ミケルソチロ」, (東京 : 岩波書店), 1957, p.28.

5)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 : 삼영사), 1984, p.238.

사람들의 왕래, 물자의 집산, 동양의 친구한 물품 수입 등을 배경으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대도시로 성장하여 지중해무역은 물론 세계무역에 종사하면서 북유럽 및 남유럽의 중계무역까지도 독점하게 크게 융성하였다.<sup>6)</sup>

14·15세기는 실제로 봉건제의 모순과 전쟁, 흑사병, 기근으로 침체된 시기이며, 인구의 증가도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상업, 고리대자본은 타락하는 봉건영주 대신 새 보호자로 통일군주를 확립하였다. 즉 북방국가의 상업, 고리대자본은 봉건영주의 대립으로 분산적 정치기구를 군주의 대권 아래 집중개편한 것이 절대왕제였고, 대권을 업고 활동영역을 확대코자 한 것이 15세기 말의 지리상 발견이었다.<sup>7)</sup> 따라서 새로운 국가통치제는 국가의 재정적, 군사적 요구라는 면에서 해석하여 중상주의의 시초를 나타낸 것이다.

## 2. 사회·문화적 배경

르네상스문화는 근대문화·예술의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르네상스문화의 특징은 고대의 재생,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주의, 개성적 표현, 국민문예 등으로 요약된다.

인쇄술의 발명은 서적의 대량생산, 산값의 서적보급, 정확한 지식의 전달 등의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일반 독서대중이 늘어나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 인간들은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과 르네상스의 새로운 사상들이 유럽각지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sup>8)</sup>

르네상스의 의미가 중세의 교권에 의하여 규정

된 기독교적 신, 자연, 인간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신, 자연, 인간관을 형성하고 이렇게 합으로써 중세 신본주의(神本主義) 내지 신(神) 중심사상에서 근세의 인본주의(人本主義) 내지 인간중심사상으로의 전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는 휴머니즘과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문예와 미술분야 뿐만 아니라 지리상의 발견 자연과학적인 발견과 발명, 철학과 종교개혁운동을 포함한다.<sup>9)</sup>

인문주의의 융성은 고대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착착게되어 부르크하르트는 이를 '세계와 인간의 발견'이라고 하였다. '세계의 발견'이라 함은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찾고자 하는 의욕으로서 신항로와 신대륙의 발견이 그 가장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렇게 바깥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욕망, 즉 팽창의 정신을 가리켜 르네상스의 정신이라고 보는 역사가도 있다.<sup>10)</sup>

르네상스인은 현실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생을 찬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찬양하고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표현하였고, 문학에서는 개성묘사에 힘썼다(그림 1).

인간적 자각과 자연의 재발견으로 인하여 르네상스문화가 찬연한 광채를 발휘할 수 있었고, 근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박무성, 「서양근대사 총론」, (서울 : 법문사), 1992, p.20.

7)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서울 : 서문당), 1978, pp.141~142.

8) 차하준, 「르네상스 사회와 사상」, (서울 : 삼공당), 1991, pp.67~69.

9) 박봉무 외 6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총서 2, (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p.65.

10) H.R. Trevor-Roper, "The General Crisis of the 17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 16, Nov. 1959.



〈그림 1〉 북이탈리아의 목목풍속(中山公男, 風俗と女たち, p.97)

### 3. 예술적 배경

중세의 화가나 조각가들이 불필요한 세부를 없애버리며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형식화로 종교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려 한데 비하여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자연과 인간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다.<sup>11)</sup>

중세의 고딕미술과 비잔틴미술 후에 이탈리아 미술의 재생을 설명하기 위하여 1550년에 처음으로 ‘리나시타(Rinascita)’라는 용어를 바사리가 썼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15세기 초기에 피렌체(Florence)에서 보여진 미술의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이탈리아 전체에 전파되었고 그 절정이 1500년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12)</sup>

15세기 초 피렌체의 거장들은 그들이 찬미했던 그리이스와 로마의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화실이나 공방에서 모델이나 동료예술가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자세로 포즈를 취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인체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다.<sup>13)</sup>

16세기 초엽은 이탈리아 예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라파엘(Raphael), 티치아노(Tiziano), 코레지오(Correggio)와 지오르지오네(Giorgione), 북유럽의 뒤터(Dürer)와 홀바인(Holbein) 등 수많은 거장들이 출현한 시대였다.

르네상스 회화관을 요약한다면 명료성, 이상미, 합리성, 과학정신, 조형성을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을 기조로 이데아적인 이상미를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세와 르네상스의 건축이 현대 건축보다 훨씬 나은 이유의 하나는 그 건축가가 예술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축가들은 각자의 생활과 작품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축적인 결정들을 그들 자신의 생활환경과 심지어 그들이 일을 했던 특정도시에서 영향을 받았다.<sup>14)</sup>

또한 인쇄기의 발명으로 가능하게 된 이미지의 대량복제는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에 의한 전달방식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더 친밀한 것이 되었으며 더욱 정교한 효과를 내주는 동판화의 이용은 순식간에 전유럽에 전파되었고 르네상스 예술의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 III.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유형과 특징

### 1. 복식유형

상업발달과 함께 중세의 봉건제도와 기독교로부터의 인간성 개방을 추구하는 르네상스는 복식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었다. 중세의 통일된 모드는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주의의 등장으로 개성 강조가 복식에도 표현되었으며, 르네상스의 인체미는 건강미 혹은 관능적인 것으로 표현되

11) 김현수,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를 통해 본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2, p.18.

12) 임영방, “후기 르네상스 미술과 Vasari(바사리)의 위치”, 「예술논문집」 제15집, 예술원, 1976, p.65.

13) E.H 콤브리치, 백승길·이종승 역, 「서양미술사」, (서울 : 예경산업사), 1994, p.173.

14) 윤장섭 역, 「건축사」, (서울 : 동일 출판사), 1990, p.252.

면서 르네상스 복장의 중요한 특징을 갖게 하였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시대구분을 범위로 설정한다.

鷹可繪子<sup>15)</sup> 르네상스 시대를 모드(mode)로서 다음의 세 시기로 제안하고 있다.

1. 1480~1510년 경 이태리 모드
2. 1510~1550년 경 독일 모드
3. 1550~1600년 경 스페인 모드

### 1) 남성 의복의 종류

#### (1) 더블릿(doublet)

pourpoint(佛)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쟈켓으로 정착한 16세기의 대표적인 상의이다. 르네상스의 인체미를 최대한으로 발휘시켰던 doublet은 중세에 병사들이 갑옷 속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의복으로 pourpoint의 원 뜻은 천을 누비거나 퀘맨 옷에서 불여진 이름이며, 안자락에는 hose를 고정시키기 위한 끈이 달려 있다. 전반적인 스타일은 어깨와 소매에는 pad로 크게 만들고, 허리와 hip은 가늘게 조였으며, 가슴과 배의 앞 중앙에 pad를 넣어 둉글게 들출시킨 peascod-belly의 모습이 나타난다.

#### (2) 셔츠(shirt)

under wear로 doublet 아래에 착용된 셔츠는 lingerie shirts라고도 하며, 흰색의 린넨이나 실크로 만들어진 전체적으로 풍성한 긴 소매의 류니형의 의복이다.

16세기 초에 doublet의 깊게 파인 목들레로 셔츠가 보이게 되면서 장식적 요소가 가미된 셔츠는 소매 끝과 함께 가장자리에 금, 적 또는 흑색의 실크사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스페인으로부터 전해져 유럽에서는 spanish black work이라고 불렸었다.<sup>16)</sup>

#### (3) 호즈(hose)

doublet의 길이와 braie의 길이가 점점 짧아짐

에 따라서 부각되는 hose는 15세기가 되면서 양쪽 다리에 각각 신었던 것이 하나로 불리되면서 hip 선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종래의 바지 형태인 braie는 속옷이 되며, hose가 바지의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남성복의 중요한 의복이 된다.

chausses라고도 하는 hose는 상·하 구분이 명확하게 되자 윗부분을 upper stocks, 아랫 부분을 nether stocks이라 하였으며, 중기에는 윗부분을 Haut de Chausses (Breeches), 아랫부분을 Bas de Chausses(stocking)라고 하였다.

#### (4) 젤킨(jerkin)

doublet 위에 입었던 일종의 외의로 doublet보다 조금 길고, 소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16세기 초기의 것은 목들레가 V자형이나 U자형으로 많이 파였으나, 중기가 되면 좁은 스텐딩 칼라가 달린 것이다.

### 2) 여성 의복의 종류

#### (1) 로브(robe)

르네상스의 인체미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는 허리, 부풀린 어깨와 스커트로 X자형 실루엣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의상미로 연출된다.

15세기까지의 robe는 전체적으로 꼭 끼는 실루엣에 square neck line의 bodice로 구성되었는데, 16세기를 맞이하면서 먼저 소매와 스커트의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를 갖게 된다.

16세기 전기에 나타난 robe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neckline은 대부분 square, round neck로 낮게 파였으며, 가슴의 노출부분은 슈미즈의 frill 장식과 partlet을 사용하여 가리기도 하였다.

16세기 후기에는 corset과 farthingale의 사용으로 더욱 축소 또는 확대되어 정형화되어 가는 robe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2) 패팅게일·베로뛰가뎅(Farthingale · Verugadin)

인위적으로 마음껏 과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15

15) 鷹可繪子, 「服裝文化史」, (東京 : 朝倉書店), 1991, p.146.

16)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Y : Charles-Schubner's Sons), 1958, pp.69~70.

세기 후반 스페인 귀족의 의상에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허리를 조이고 hip을 크게 부풀리는 데에서 귀족의 위엄과 박력,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효과가 커기 때문이다.

vertugadin은 스페인어의 'vertugo'에서 유래된 말로 '가지가 잘 휘어지는 어린 나무'를 의미하며, 어린 나무를 골조로 해서 스커트를 크게 넓혀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영국에서는 farthingale이라고 불렸다.

스페인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는 bell형이었는데, 이 vertugadin은 16세기를 통하여 프랑스로 전해졌고, 1550년 경부터는 프랑스식 farthingale인 roll-farthingale이 유행하였다.

1580년 경부터는 인체를 더 과장되어 보이게 하는 wheel-farthingale이라고 하는 대형의 베팀대가 창안되었다.

### (3) 코르셋(corset)

부자연스럽게 길고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16세기의 corset은 basquine, corps-pique 등으로 조끼 형태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에서 고안된 basquine는 두 겹의 뻣뻣한 linen 또는 가죽 사이에 처음에는 딱딱한 나무에서 차츰 금속, 상아, 고래수염 등을 busk로 만들어 넣어 누벼서 만들었다.

1577년에는 basquine과 같은 형태이면서 좀 더 딱딱하여, 몸을 더 강하게 조여주는 corps-pique가 등장하였다.

### 3) 헤어스타일과 모자

여성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가진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초기에는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는 단발형이고 턱 주위에 수염을 넓게 길렀다. 일찌기 향수 제조법의 발달이 있었기에, 머리에 향수, 포머드 류를 발라서 가지런히 정리하였으며, 중기가 되면서는 현대의 남성과 같이 짧은 머리형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유행하였다. 당시 짧은 머리형의 대두는 doublet의 high neckline과 ruff collar의 사용에서 기인된 변화였다.

모자로는 깃털과 보석으로 장식된 crown이 높은 toque와 coif나 under cap 위에 beret를 썼고, 말기에는 beaver hat도 유행하였다.

초기의 여성들은 앞 이마를 드러내놓고, 앞가리마에 머리에 꼭 맞는 모자를 쓰는 단순한 형이 유행하였다. 당시의 특징은 눈썹과 앞 이마의 머리를 깎아 이마를 넓게 보이는 것으로, 가는 눈썹과 연한 화장을 했다. 중반부터는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부풀려서 위로 올리거나 고수머리를 하였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velvet, satin으로 만든 beret, toque를 썼으며 타조 깃털 장식을 하였다. 16세기 초의 과부들은 barbe라는 머리 수건으로 머리와 목을 모두 가리고 다녔다.

### 4) 장신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행되었던 장갑은 손목 부분이 접히며 slash 장식이 있었고, 가장 소중하게 간직되었던 품목으로 세기말에는 커프스 장식도 있었다.

16세기 중반부터 보이는 손수건은 레이스로 가장자리 장식이 되어 있거나 구슬이 달려있고, 크기가 큰 것을 애용하였다. 또한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품목으로서 부채를 들 수 있다.

세기 말에는 cut work와 lace로 장식되거나 ruff가 달린 좁은 형의 apron이 출현하였으며, 보석 장식의 girdle은 16세기 동안 내내 여성들의 robe에 화려함을 더해주는 장식물로 애용되었을 뿐 아니라, 향낭, 소품 주머니, 부채 등을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1540년 경에는 검은 velvet이나 silk로 된 mask를 귀부인들이 착용하였는데, 실용적인 목적과 신분을 감추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위복식의 유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복식의 외형적으로 上, 下를 pad와 화텅게일도 과장되게 부풀리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여서 가능하게 보이는 아워 그拉斯 실루엣이었다. 즉 실루엣이 곡선적이며 긴박감과 예각적인 복식형태를

알 수 있다. 또한 관능적면에서 데플파쥬의 넥크라인과 코드피스의 구조와 피스코드밸리의 풍만감 등 인해의 조형미를 연출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 2. 복식의 특징

### 1) Slash

slash의 개념은 깊이 자른다, 속옷을 보이도록 겉옷을 베어내다란 뜻으로 장식성이 강한 르네상스의 복의 특징으로<sup>17)</sup> 옷감을 일부러 갈라서 만들어진 절개구 사이로 흰 속옷이나 빨간색 안감 등, 대조적인 다른색 옷감이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477년 스위스 병사들이 프랑스의 Grandson 전장의 Duke of Burgandy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의 쫓어진 군복과 군기, 의복 등을 천막으로 기워 입다가 남겨두고 온 것이 패션의 되었는데,<sup>18)</sup> 1520년부터 153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1650년까지 유행되게 되었다.

이 slash는 처음엔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十자형, 별모양, 꽃모양, 가로, 세로, 사선, 八자 뜨기 식의 여러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너무 심하게 유행하여 어느 시기에는 군인이 외는 slash를 금지시키는 규제가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6세기의 절정인 slash mode를 최대로 이용한 독일 병사의 전체적인 slash는 꽂잎모양의 slash, 몇단의 slash된 puff, 다리에 엇갈린 slash등의 과장된 특이한 여러 형태의 slash를 볼 수 있다(그림 2).

이탈리아 여성복의 가장 큰 변화는 소매에 있는데, 걸 가문의 소매는 어깨로부터 길게 절개되어 그 사이를 연결시켜 군데군데 slash와 puff의 형

태가 되게 하거나 드레스의 나머지 부분도 같이 slash로 만들었다.



<그림 2> 기능적 역할의 Slash(原色世界の美術 第6巻, 153)

독일 여자의 의복은 남성복처럼 소매에 slash를 넣어 속의 옷이 보이게 하였고 소매는 불였다 때었다 할 수 있었으며 소매는 환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가능한 slash를 하고 puff되게 하였다.

### 2) Ruff

ruff는 르네상스시대를 특징짓는 유일한 요소중에 하나로 프랑스에서는 fraise라고 불렸다. ruff가 갖는 우아한 선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주름의 리듬은 의상 전체에 주어진 실루엣과 리듬의 조화를 잘 이루어 르네상스시대의 의상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ruff의 제작법은 마, 캠브릭(cambric), 사 등의 얇은 천을 길고 가늘게 재단해 형을 잡기 위해 푸새를 했다. 초기에는 뼈나 목재의 陹팅 포킹 스틱(setting pocking stick)을 달구어 그것을 푸새한 포에 대어 옆으로 또는 길이로 8자형이 되도록 주름을 하나씩 접어 나가는데 이것은 소형 ruff만 제

17) 文化出版局, 「服裝大百科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69, p.525.

18) R. Turner Willcox, 전계서, p.77.

19) 今和・次郎集, 「服裝史」, (東京: ドジス), 1972, p.171.

작할 수 있었다.

1573년 경의 대형의 ruff는 목 위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풀을 먹이는 것 정도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었으며 받침대가 필요하였으므로 아름다운 철사로 만든 뼈대에 금도금을 하거나 금사나 실크 사를 감아 이것을 상의에 고정시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베텔 수 있게 하였다.

ruff의 연결은 고리나 단추, 끈으로 했으며 대형의 것은 ruff 밑에 pad를 대고 슈미즈 칼라에 감아 붙였다. ruff 칼라는 이탈리아에서 창안되어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으로 전파되었는데 둑근 원형의 ruff는 하이 넥크라인의 까운을 입은 스페인에서 유행되었고 앞이 갈라진 부채형이나 나비형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선호되었다(그림 3).



〈그림 3〉 초상화에 보이는 Slash 짐식(동아출판사, 世界美術大全集－르네상스 미술－, p.123)

초기의 ruff는 小形으로 슈미즈 칼라와 구별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70년대부터 차츰 커지기 시작했으며 ruff는 1580년경에 가장 전성시대로 1595년 경에는 폭이 9인치, 높이 두르는 길이가 총 18 야드에 이르는 대형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20)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N.Y : Workman Publishing, 1991), p.175.

21) 정민숙, 전계서, p.16

22) 이희현, 「6~18세기 서양복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3, p.110.

ruff의 색은 풀을 먹일 때 풀의 색에 따라 백, 황, 적, 청, 자, 녹색 등 다양했으며 대체로 백색이나 담황색을 사용하였다. ruff는 디자인과 크기가 다양하였으며 세공기술과 통제기술에 있어 상당히 정교해졌고 이에 따른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유행이었던 것은 대형의 cartwheel ruff와 두겹인 double ruff, 비대칭적으로 접힌 cabbage ruff였다.<sup>20)</sup>

ruff의 형태는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독특한 스타일을 갖추면서 발달하였는데 영국과 스페인의 ruff는 대체로 앞보다 뒤가 높은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프랑스의 ruff는 높이보다 옆으로 퍼지도 록 넓은 폭을 강조하였다.

### 3) PAD

pad는 원래 병사들이 갑옷 속에 신체 보호의 목적으로 상의의 앞면만 넣기 시작한 것이 일반 시민에게 옮겨져 신체의 곡선을 과장하는 취향으로 발전하였다.<sup>21)</sup>

이상적인 남성의 육체미는 근육이 발달한 어깨, 가슴 등이었으며 이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근육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몸에 꽉 끼는 상의가 필요했다. 가슴부분은 자신의 근육만으로 만족치 못하여 심을 넣어 부풀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허리는 조였으며, 하의도 상의의 크기 게 맞추어 부풀리게 되었다.<sup>22)</sup>

르네상스시대의 남자들은 걸옷에 pad를 넣거나 퍼프를 만들어 어깨를 강조하였고 다리에는 꽉 끼는 호즈를 신고 심을 넣어 돌출시킨 codpiece로 남성적인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세기 후반에는 pad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부풀림을 앞중심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가슴에서 배까지 부풀리게 되었다.

pad의 재료로는 아마부스러기, calf's hair(송아지나 코끼리 따위의 편), 목면포(木棉布), 백조의

술털(swan sdown), 건초(hay), 격(barn)등이 사용되었고, 속에 넣는 요령이나 접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복에서 패드의 특징은 헨리3세(1574~1589)쯤 해서 그 절정에 달하였는데 패드를 팽팽하게 넣어 불룩하게 부풀은 소매나 어깨 허리가 훌쭉한 동체(胴體)와는 완전히 하나의 구역선을 이루어 실루엣을 형성하였으며 'peascod belly'라는 가죽으로 된 가슴받이 패드로 앞을 튀어나오게 하였다(그림 4).



〈그림 4〉 과장된 Peascod belly (Wolfgang Brunn and Maxtilke,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85)

복식에 있어서 pad는 인간미의 재생을 입체감에 의해 즉 실루엣의 양감을 강조·과장함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 IV. 복식유형 형성의 배경

##### 1. 시대적 배경

르네상스는 많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장원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단일의 통일적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사적인 경제 이익이 국가목적에도 유용하다는 국가관이 정립되었다. 길드의 성립과 더불어 일어난 경제성장은 諸侯사회를 분해시키고 정치의식을 성장 시켜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사회적 면에서는 개성의 존중 사상이 일어나 개방 사회로 지향하게 되어 세속적 감정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었고, 100년이라는 오랫동안 중세를 지배하던 봉건적 사회가 무너지고 시민계급이 성장하여 사회의 중심이 되고 시민문화가 초래되었다. 십자군 원정 이래 도시의 발달은 자유정신을 갖게 하였고, 대학의 발달은 자각의식의 성장과 지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 1) 전쟁과 신대륙 발견

1447년에 Burgundian이 Nancy에서 스위스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곧 스위스군에게 격멸되고 말았는데 이 계기가 새로운 유행을 가져오게 했다. 막사에 뛰어든 정복자 스위스 병사들은 악탈품(掠奪品)을 보자 황홀한 흥분을 금치 못해 곧 화려한 주단을 찢어 그들의 군복에 군데군데 파손된 구멍을 틀어 막았고, 그들은 이러한 괴상한 변장대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개선한 영웅들의 이러한 모습을 곧 따랐는데, 파열구(破裂口), 주름, 다색적인 차림이 시민들의 복장으로 되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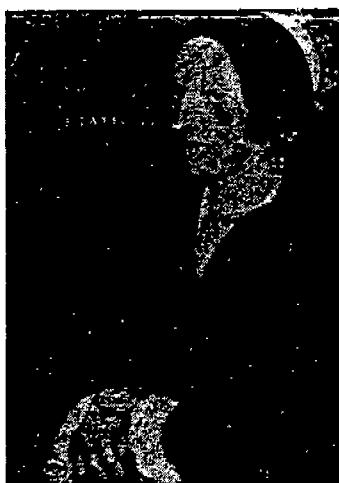
근세에 전쟁이 복식에 미친 영향은 슬래쉬와 같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유럽 列國들의 세력다툼으로 시대적 우위권을 갖게 되는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이 세계적 패션 선도자로 그들의 모드를 유럽에 유행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세기에는 14·15세기의 중심국가였던 이태리가 1492년 미대륙의 발견으로 스페인·프랑스·영국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어졌으며, 그 중에서 스페인은 유럽 각국中最 가장 큰 힘을 가졌다.

스페인은 당시 종교적 威儀가 각별히 엄격했던 관계로 外面의 차림이나 거동에서 단정하고 근엄

23) Blanch Payne, 전개서, p.261.

함을 그들의 논리로 신봉했었다. 그들의 이러한 엄격성 형식성은 새로 나타난 모드와 일치했다. 즉 턱밀까지 올려 받친 칼라, 가는 脊體, 넓게 펴진 대형스커트, 우미한 소매, 이런 것이 품위있는 단정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적 생활신조와 조화를 이룰뿐 아니라 엄숙함과 어두운 단색의 이용, 흑색의복의 사용등으로, 국제적 결혼이나 교역전쟁등으로 유럽 복식에 영향을 끼쳤다(그림 5).



〈그림 5〉 스페인풍의 어두운 의상(동아출판사, 世界美術大全集－르네상스 미술－, p.21)

한편, 몇몇의 역사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世紀초의 인도나 스리랑카로 원정간 유럽인은 이 지방사람들이 기름 바른 긴 머리의 접촉으로 의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밥풀로 풀 먹인 칼라(이것의 사용은 이미 '마누법전'에 인용되어 있다)를 입은 것에 반하였다. 이 풀을 먹이는 행동이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전해지고 영국에서는 이미 1564년에 사용되었고, 자연히 스페인까지 전파되었다고 ruff의 기원을 보기도 한다.

## 2) 장원의 몰락과 신흥계급의 성장

1400년경에 유럽인구는 혹사병 이전의 인구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인구가 회복되었다. 혹사병의 결과로 농촌은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토지는 경작되지 않아 황폐해졌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한 영주들의 대책은 농민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혹사병의 만연, 대규모의 전쟁, 농민의 반란, 기후 변동으로 인한 기근, 이러한 것들이 봉건제의 위기를 맞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15세기 말은 과도기로서 상인은 동업자로 부터, 농노는 영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수세기 동안 위세를 자랑하던 하나의 사회가 몰락하고 또 하나의 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다.<sup>24)</sup>

이 시대의 상인들은 단순히 상업 활동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었고, 플랑드르 지방과 같이 모직물이 융성했던 공업 중심지는 모직률 제조업자를 겸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운행가를 비롯한 대 금융가가 상인이나 무역자와 나란히 상충 부르조아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도시 富는 이들에게 치중되었다. 15세기의 메디치家(the medici)는 처음 상인으로 출발하였는데, 原毛를 수입하여 방직공에게 공급하고, 다시 그 실을 織布工에게 공급하여, 직조된 직물을 매입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하였다.

Renaissance는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중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는 사회였지만, 그 실상은 부와 권력에 의해서 계급과 신분의 차가 있던 사회로서 부유한 부르조아 상인들과 귀족들 중심의 사회였다.

이러한 차이는 의복에 결부되어 상류층들은 그들의 의복외관을 padding, corset, farthingale 등을 사용하여 극도로 과장시키며 보석 및 화려한 장식기교로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였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특히 실루엣의 과장, ruff의 사용과 어두운 색의 선택으로 더욱

24) Andre Moroam, 신용석 역, 「영국사」, (서울 : 기린원), 1993, pp.198-203.

권위적인 모습을 갖게 하였다.

호화로운 의복의 취향은 드디어는 극단적인 사치 금지령의 제정을 재촉하게 되고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어 어떤 때는 실크와 벨벳 옷의 매수를 제한하는 사치금지령, 1504년 이탈리아에서는 독일풍의 의상이 금지되었으며, 1514년에는 목을 깊이 판 의복은 못 입도록 하는 규제령 등이 있었다.<sup>25)</sup>

### 3) 길드의 조직과 무역

상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상업계급이 신 흥계급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 유럽에 gild체제(구 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긴 상공업의 단체)가 생기게 되어 모든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로네상스 시대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현저한 직물 산업의 발달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14세기와 15세기 중반 전 유럽에 생기게 된 길드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직물생산 체계는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계속적인 상품의 개발을 가져왔다.<sup>26)</sup>

이탈리아 직물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견직물이다. 온난한 이탈리아의 티스캔(Tuscan)의 풍토는 組織이 好適하기 때문에 8세기경에는 이들이 루카(Lucca)로 옮아왔고 다시 거기에서 프로렌스(Florence), 제노바(Genova) 또는 베니스(Venice)로 전파되었다.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14세기경에는 미려한 실크, 벨벳을 생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속류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비잔틴 아래로 기술을 배워온 실크가 눈부시게 발달하였고 벨벳, 다마스크가 다양한 기술과 금속 사등의 사용으로 그 화려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러한 직물을 의복에 적합한 소재로 발전시킨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의복의 소재로 하기에 너무 무거웠다. 화려한 실크 직물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반면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로부터 실 크로된 우아한 의복을 사고 싶어 했다.<sup>27)</sup>

견직물의 벨벳과 다마스크가 그 명성을 얻은 반면 문양의 경우는 몇 가지 안되는 획일적인 형식이었다. 즉,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에 있어 중국과 서 아시아 고대 동방의 문양인 용·독수리·그리폰(griffon : 독수리의 머리·날개와 사자의 몸통을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짐승)·공작·닭·靈鳥 등의 동물 문양은 차차 사라지고 꽃문양이 독점화 되어갔다(그림 6).



〈그림 6〉 15세기 중엽의 직물(原色世界の美術 第6卷, p. 30)

대표적인 문양이 석류문양이다. 이것은 파인애플, 솔방울을 닮았고, 영경퀴와도 비교될 만한 것 이었다.<sup>28)</sup> 석류문양은 풍요로움과 영원함을 상징 하는 것으로 최고급 품질의 소재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문양은 이탈리아가 특히 터키와의 교역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다.

십자군 전쟁이래 문장의 장식은 계급과 가문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부와 가문의

25) 유회정, "slash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80, p.13.

26) Carolyn G. Brady, 「Western World costume on Outline History」, (N.Y : Applecation), 1954, p.135.

27) 김명애,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p.40.

28) "이태리 텍스타일의 발자취", 「Knit Today」, 1991, 4, p.52.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 르네상스 인본주의 시기에 와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존엄한 지위가 중요하게 되었을 때 특수 디자인된 소재의 문장이 지위 상징의 하나였다. 풀로렌스, 제노아 그 밖의 다른 지역의 부유한 상인들은 문장 상징들이 사용된 직물로 그들의 귀함을 표시하였다.<sup>29)</sup>(그림 7).



<그림 7> 문장의 문양(小學館, 原色世界の美術 第6巻, 66)

이러한 직물의 생산은 물감의 수입을 측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색조에 대한 관심은 세기초에서부터 깊어 갔으나 후반기 쯤에는 色數의 사용이 더욱 많아졌다. 한 복장에는 보통 10~12색이 사용하는 유행을 보았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간다. 그래서 서양복장사에는 이 때의 多色을 "Parti color"라고 해서 당시의 색조사용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2. 사상적 배경

복식사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시대에 나타나는 착용자의 집단의식구조와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한다.<sup>30)</sup>

십자군 말기로 부터 서구 제국에서 학술연구가 성황을 이루면서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라센의 문화가 유입되어 정신 계몽이 일어났으며, 지리상의 발견 또한 인간시야를 확대시켜 새로운 인성과, 사회관, 세계관을 갖게 하였다.

Renaissance는 인간이 萬有의 중심에 있고, 신이나 우주의 중개자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서서 스스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적 존재라고 보는 결과의 산물이었다. 즉 억압과 강제와 숙명을 본질로 하는 봉건적 존엄에 대해서 운동과 자유의지에 의한 발전을 본질로 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 주위에 그러한 확인에 근거를 나타내 주는 현실의 움직임이 Renaissance인 것이었다.<sup>31)</sup>

### 1) 인체표현을 위한 예술가의 노력

각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이상은 각 시대의 시대적 토대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국 도덕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도 각각의 문화를 형성하는데에 필요하며 각각의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Renaissance의 예술은 고대의 정신과 양식·수법을 부활시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특히 Renaissance 문화가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번영하면서 인간중심의 세계로 접근하는 현세적 경향이 나타났고, 자연과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예민한 관찰이 행하여 졌으며 자유로운 표현과 사실적이고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것이 이 시대 예술의 특징이었다.

미술에서의 진보를 말할 때는 학문에서의 이탈리아 거장들의 세 가지 명백한 업적을 눈여겨 보았다. 하나는 과학적인 원근법의 발견이었으며, 두번째는 아름다운 인체에 대한 완벽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던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었고, 세번째는

29) 상계서, p.60.

30) J.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Hogarth Press), 1950, p.148.

31) 大數 伸, ルネサンスの潮流, (東京 : 文芸春秋社), 1957.

당대에 있어서 기품있고 아름다운 모든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고전시대의 건축 형식에 대한 지식이었다.<sup>32)</sup>

현대미술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위젠크 문츠(Eugene Muntz)에 따르자면, 이태리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고대 그리스 인체미술을 본 받았고 또 그 영향이 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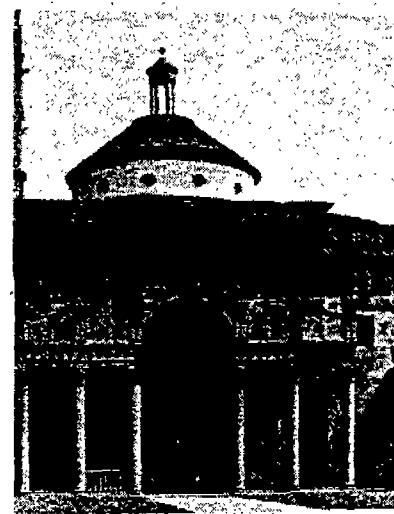
인체를 직접 해부하는 등 해부학에 관한 미켈란젤로의 전문지식은 인체의 사실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구사를 할 수 있는 기초였다는 사실<sup>33)</sup>을 알 수 있는데, 레오나르도 역시 자기가 읽은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3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서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기도 했으며 자궁 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신비를 조사한 최초의 사람 이기도 했다.

고전주의와 휴머니즘에 의한 세속적인 관심은 미술에서 초상화의 장르를 확립하게 되었고, 화가들은 인물묘사에서 의상과 직물과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라파엘로의 색채는 자연이 보여주는 색채보다도 아름답다.

브루넬레스키는 마치 인간에게 더욱 안락함을 제공하려는 듯 점점 더 인간의 크기에 적합한 교회당들을 지었다. 이러한 안락함과 접근의 용이함은 신과 인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브루넬레스키가 산타 크로체 소수도원의 참사 회의장으로 지은 파찌 예배당은 그러한 안락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그림 8).

이러한 건축양식은 복식에도 나타나 고딕의 예각적 외관이 자연적이고 柔和的인 곡선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문학과 시각예술의 르네상스는 발달하고 있었는데 예술이 인체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서서히 변화를 끝마친 것은 16세기 초였다. 인간이 꿈 꾼 르네상스의 존엄성과 권력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술가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상을

고안하였고 우아하고 조화로운 의상을 만들기 위하여 선과 색상을 결합하였다.



〈그림 8〉 Pazzi 家 예배당 (Herausgegeben von Rolf Toman, Die Kunst der Italienischen Renaissance, p.103)

## 2) 종교적인 속박에서의 해방

르네상스 사회의 불경스러움, 비도덕성, 향락주의와 속물근성이 종세의 기독교적 금욕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고대적 異教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사실 르네상스 사회의 비도덕적 요소를 생각해볼 때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란으로만 해석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종세의 경우 여자에게는 가는 허리, 가능한 한 가늘고 긴 사지(四肢)가 요구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와 반대로 큰 엉덩이, 통통한 허리, 튼튼한 허벅다리가 요구되었다.<sup>34)</sup>

쾰른의 여성은 아름다운 손으로, 브라반트(벨기에 중부 지방)의 여성은 아름다운 등으로, 프랑스의 여성은 불룩하고 아름다운 배로, 오스트리아의 여성은 당당한 유방으로, 슈바벤의 여성은 엉덩이

32) E.H. 폴브리치, 쇠넨 악, 「사양 미술사 下」, (서울 : 열화당), 1994, p.325.

33) 임영방, 전개시, p.59.

34) 에두아르트 폭스, 전개시, p.6.

가 큰 비너스의 특유한 미로 유명했다.<sup>35)</sup>

맨 처음에는 먼저 에로틱한 모든 아름다움, 즉 유방이나 허프의 크기, 가느다란 허리, 아름다운 각선미 등을 두드러지게 하는 몸에 차 달라붙는 복장이 나타났지만 이 복장은 점차 유방이나 허프, 즉 이른바 목적미의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에로틱하게 과시하기 위하여 마음껏 그로테스크한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베네치아에서는 상류계급의 여자들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든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하는 풍속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얼굴은 베일로 꼼꼼하게 가리면서도 유방만은 거칠없이 드러냈다. 또한 당시의 화가들이 왜 젖을 주는 마리아를 즐겨 그렸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림 9, 10).



〈그림 9〉 과부의 복장 (Wolfgang Bruhn and Maxtilke,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78)

복장의 품위는 상의의 목들례 선이 깊게 파여짐에 따라 그만큼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노출된 유방이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항상 이 특권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베개 스커트(Wulstenrock)가 출현했다. 여자들은 때로는 25파운드에 달하는 무거운 베개, 즉 “슈페크(Speck : 비계 살)”를 몸에 둘러 베개 스커트의 모양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크게 했다. 베개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는 마치 임신부처럼 보였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시대와는 달리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은 이와 같은 견해로



〈그림 10〉 가슴이 노출된 聖母子畫 (世界文化社, 世界の名畫 I, p.80)

설명이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임신한 여성을 통해 모성의 신성함을 칭송했다는 전의적(轉義的)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임신상태를 관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체의 여성은 그럴 경우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를 크게 했던 것도 그것을 증명한다(그림 11).

르네상스 시대 남자의 복장형태는 프랑스인이 브라켓트(Braguette) 또는 라츠(Latz)라고 불렀던 바지의 허벅다리 사이에 있는 앞주머니가 특징이다. 이 주머니 때문에 르네상스시대의 남자복장은 현대인의 눈에도 아주 괴이하게 보인다(그림 12).

35) 에두아르트 폭스, 전계서, p.12.



〈그림 11〉 임신한 듯한 여성의 모습 (世界文化社, 世界の名画 I, p.39)

상의가 점점 짧아져서 겨우 허리 근처에 닿는 짧은 조끼 형태가 나타났을 때 앞주머니는 바로 음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상의 필수품이 되었다. 몸에 밀착된 제 2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통 족은 풀태바지는 음부를 전혀 숨겨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이 시위효과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휘했다. 가장 널리 유행했던 첫째 방법은 이 앞주머니를 hose와 같이 통 족은 바지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밖에도 주머니를 색색의 리본이나 주름장식으로 꾸몄고 돈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요란한 금자수나 보석까지 달았다. 둘째 방식은 주머니에 솜을 채워 넣어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켜 생긴 그대로 노골적으로 모조하는 것이었다. 세째 방법은 주머니의 형태를 그 남자의 이른바 간단없는 성활동을 반영하도록 모조하는 것이었다. 즉 자신이 항상 사랑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교회에서는 이를 지나친 선정적 표시라고 극구 비난했으나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적인 것으로 1580년 까지 계속 유행했다. 성기보호



〈그림 12〉 Codpiece 강조된 농부복(동아출판사, 世界美術大全集－르네상스 미술－, p.104)

를 목적으로 유행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남성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sup>36)</sup>

### 3) 자아확장을 위한 노력

세기말에는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장식들은 과다해졌는데 보기에도 우스꽝스럽고 사용도 불편한 바퀴모양의 farthingale, 지나치게 과하게 부풀린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소매, 철사로 베팀대를 대야 했던 ruff등은 자아확장의 장식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지나친 과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육체미에 관심을 기울여 육체미의 표현을 위한 의복구성적인 사고로 현상적인 형태의 의상을 만들었다. 이 의상을 모델로 해서 신체를 세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 신체세공기구, 즉 롤르셋, 바스끄, 꼬르뻬께, 오스 큐, 등의 각종 조절기가 등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petticoat의 수는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유행에 대한 감각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petticoat의 재료는 wool이나

36)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New York : William Morrow & Co., Inc.), 1975, p.147.

linen, cotton으로 만들었고 때로는 색(적색)이 있는 것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7)</sup>

처음에는 남자의 속옷에 붙여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을 러플(ruffle)이라고 불렸으나 점차 크기가 확대되어 대형의 러프가 되고<sup>38)</sup> 당당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도록 러프는 목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목을 받쳐주면서 위엄과 품위를 나타내어 전체적인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래는 다른 外衣 밑에 입었으며 누볐던 더블릿은 신변보호를 위하여 무장의 일환으로 입었던 시민복이 되면서부터 속심 넣는 기법은 교묘해져서 신체선을 과장하려는 취미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속심을 넣고 안으로 스티치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 기교는 또한 신체를 자유로 변형하면서 남성적인 위세를 과시하는데 효과가 컸다.

또한 의복의 형태가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한 갖가지 고안을 해내게 되자 직물과 색상도 역시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발달하였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은 높은 신분과 계급을 의미하며 품위있고 고귀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싸고 귀한 직물을 갈망하게 되었다.<sup>39)</sup>

이 시기에 사치가 최후로 과시되었던 복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던 헐렁한 바지였는데, 이 헐렁한 바지는 한 사람이 60엘레(Elle : 약 2자 1치)의 옷감을 몸에 두르게 되는 것으로 16세기 후반기까지 각국에서 널리 유행했다.

## V. 결 론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언제나 옷에 반영되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이상은 시대의 모든 의상의 토대를 형성한다. 의상이란 이른바 일상생

활의 실천에 있어서 시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전위된 형태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 남자들은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깨와 소매, 가슴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여자들은 여성미를 선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목들레선을 가슴깊이 파고 허리를 가늘게 조였다. 허리를 더 가늘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매와 스커트를 부풀렸는데 이는 ruff collar와 리듬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처럼 과장된 변형라인과 전체적인 조화미가 르네상스 복식의 특징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특이한 의상요소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상을 고찰함으로서 그 발생요소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어두운 종세를 지나 형성된 르네상스시대인 만큼 억압과 회생, 인내, 그리고 굴종의 사회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욕망이 따르기 마련이며 욕구불만이 반발적 작용을 일으켜 현실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우선, 시대적 배경에서 유래된 복식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쟁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 slash, 신대륙 발견을 통해 얻어진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과 보석, 당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스페인 등 의상의 유행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혹사병의 유행으로 장원제도의 몰락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상업주의로의 전환은 대부호의 상인을 낳았고 그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기 위한 노력이 호화로운 의상을 만들었다.

셋째, 길드의 조직과 무역으로 다마스크, 벨벳 등 당시 호화로운 의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풍부한 직물이 생산되었고 문장을 통해 부유한 상인을 표시하게 되기도 한다.

종세 이후부터 성장한 도시문화,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번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적인 성

37)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New York : Drama Book Specialists), 1978, p.25.

38)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estern costume」, (N.Y. : Bonanza), 1986, p.343.

39) 이희현, 전계서, p.123.

향, 교육으로 인한 자아의 각성, 절대국가의 성립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 등은 이렇듯 독특한 르네상스 복식을 탄생시켰다.

다음으로 사상적 배경에 따른 복식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르네상스 사회는 인간과 예술의 복합적 노력을 통해 인문적이고 고전적인 이상의 사상, 유행 양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가 이러한 이상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는 후대에게 남겨진 미술과 인생의 여러 예들을 통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진실되고 뛰어난 미술은 실제적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예술가들은 인간의 사실적 인간미를 표현하기 위해 나체화를 즐겨 그리거나 조각했으며 관능적으로 표현되기까지 하였다.

특히, 궁중의 화가들 (Cellini, Rapahel, Leonardo da vinci, Hans Hobein, Titian)은 의상디자이너로도 활약하였는데 그들은 우수한 예술가적인 참신한 감각으로 조화, 균형, 비율 등 디자인상의 원칙을 구사하며 의상디자인에 반영시켰다.

둘째, 종세의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긴장에서 해방하려는 움직임이 복식에도 나타나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그 예로는 깊게 파인 데콜타쥬, 가늘게 조여진 허리, 엉덩이의 강조, 피스코드벨리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르네상스는 창조의 시대였고 또한 건강하고 왕성한 관능의 시대였다.

셋째, 자아 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 복식의 유형으로는 ruff의 과대한 확대, pad를 이용해 어깨나 앞가슴 등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패팅 게일 등의 스커트 버팀대의 이용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자아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식의 특징과 관련되며, 특히 장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성적매력을 표현하게 되기도 하며 권위를 나타내게 되는 복장요소가 되기도 한다.

르네상스 사상이 고전의 부활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면 복장에서도 간소한 고전풍이 소생했어

야 당연하겠지만 고대의 단순한 재생과 부활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 사상적인 제반 요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르네상스 복식형태에서 보여지는 여러 복식요소들은 의복의 가장 큰 목적인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보다도 조형적인 면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복식의 구성상에서 일종의 과학정신의 발전에 의한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창조적인 것은 또한 생명 현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인간의 사회적 삶이 반영된 모든 정신도 물론 관능으로 가득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철학, 과학, 법률체계, 문학, 미술, 생활 규칙, 특히 육체관 속에 관념화하여 드러낸다. 육체관으로의 관념육체관은 아름다움의 어느 한 법칙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상으로까지 높아지는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의 승리가 압도적이면 압도적일수록, 그 시대에 개척한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사고방식도 점차 응대해지고 대담해진다. 그러므로 르네상스가 창조한 모든 사고방식은 위대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과 풍속고찰은 매우 광범위하여 단시일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과제라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명애,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2.
- 김현수,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를 통해 본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2.
- \_\_\_\_\_, “이태리 텍스타일의 발자취.” 「니트투데이」, 1991.
- 동아출판사, 「세계미술 대전집」, 서울 : 동아출판사, 1988.
- \_\_\_\_\_, 「世界美術大全集－르네상스미술－」.

- 서울 : 동아출판사, 1985.
- \_\_\_\_\_, 김창규 역, 「르네상스의 미술」, 서울 : 예경산업사, 1991.
- 로자라이아레츠, 「Renaissance Art」 세계미술 대전집 5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88.
- 민석홍, 「서양사 개론」, 서울 · 삼영사, 1984.
- 박기완, 「복식용어사전」, 서울 : 유신문화사, 1975.
- 박무성, 「서양 근대사 총론」, 서울 : 법문사, 1992.
- 박봉무외 6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총서 I」, 대전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1995.
-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II - 르네상스」, 서울 : 까치출판사, 1986.
- 에리히 아우얼 바하, 김우창 유종호 역, 「미에시스」, 서울 : 민음사, 1987.
- 유희정, “Slash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80.
- 윤장섭 역, 「건축사」, 서울 : 동일출판사, 1990.
- 오영복, “16세기 서구 여성 가운(GOWN)에 대한 형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2.
- 이희현, “6~18세기 서양복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3.
- 임영방, “후기 르네상스 미술과 Vasari(바사리)의 위치”, 「예술논문집」 제15집, 예술원, 1976.
- 임영자, “Renaissance 의상의 Design이 현대의 상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도여자사범대학, 1968.
- 정민숙, “16세기 남자복식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1990.
- 조경래, 「서양근세사」, 서울 : 일신사, 1990.
- 지오르지오 바자리, 이근배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전」, 서울 : 탐구당, 1986.
-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 : 삼영사, 1984.
- \_\_\_\_\_, 「르네상스 사회와 사상」, 서울 : 심공당, 1991.
- 최석태, 「예술과 문명」, 서울 : 문예출판사, 1989.
- 최연정, “Renaissance시대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7.
-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서울 : 서문당, 1978.
- 퍼거슨, 김정욱 역, 「르네상스」, 서울 : 삼문당, 1987.
- 한국미술 연감사, 「세계미술 대사전 I」, 서울 : 예술과 비평사, 1992.
- 형성사 편집부, 「세계의 역사 - 중세편 -」, 서울 : 형성사, 1986.
- 황미숙, “Collar 기원과 형태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1992.
- E.H. 곱브리초, 백승길 이종승 역, 「서양미술사」, 서울 : 예경산업사, 1991.
- \_\_\_\_\_, 최민역, 「서양미술사 下」, 서울 : 예경산업사, 1994.
- H.W. 젠슨, 김윤수외 역, 「미술의 역사」, 서울 : 삼성출판사, 1993.
- Andre Moroia, 신용석 역, 「영국사」, 서울 : 기린원, 1993.
- M.P. Gilmore, 지동식외 공역, 「르네상스의 미」.
- Sidney A. barrel, 임희완 역, 「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서울 : 민음사, 1992.
- 今和次郎集, 「服裝史」, 東京 : ドジス, 1972.
- 高階秀爾 編, 「歴史と物語の女たち」, 集英社, 1979.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 近世編 -」, 東京 : 光生館, 昭和 53.
- 大類伸, 「ルネサンスの潮流」, 文藝春秋社, 1957.
- 摩翠慈善郎 編, 「世界美術全集30」, 角川書店, 昭和 36.
- \_\_\_\_\_, 「世界美術全集31」, 角川書店, 昭和 36.
- \_\_\_\_\_, 「世界美術全集32」, 角川書店, 昭和 36.
- 文化出版局, 「西洋服飾史」, 東京 : 文化出版局.
- 石山彰, 「服裝辭典」, 東京 : 三陽社, 1977.
- 世界文化社, 「世界の名畫 I」, 世界文化社, 1980.

- 羽仁五郎, 「ミケルソヂロ」. 東京: 岩波書店, 1957.
- 原色世界の美術 第1巻, 小學館, 昭和 44.
- 原色世界の美術 第3巻, 小學館, 昭和 44.
- 原色世界の美術 第5巻, 小學館, 昭和 44.
- 原色世界の美術 第6巻, 小學館, 昭和 44.
- 田中千代,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76.
- 中山公男, 「風俗と女たち」. 集英社, 1979.
- 中川豊三郎, 「服飾意匠」. 東京: 光生館, 1972.
- 腐可綸子, 「服裝文化史」. 東京: 朝倉書店, 1982.
- Arnold Hauser, *The Social History of Ar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Vol. II, 1977.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 Carolyn G. Brady, *Western World Costume an Outline History*. New York: Appleton, 1954.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estern Costume*. New York: Bonanza, 1986.
- Elizabeth Ewig, *Dress and Undress*. New York: Drama Book Specialist, 1978.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 Heny Harald Hansen, *Costume and Styles*. London: Methuen, 1968.
- Herausgegeben von Rolf Toman; *Die Kunst der Italienischen Renaissance*. K. Nermann Germany, 1994.
- H.R. Trevor Roper, *The General Crisis of the 17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 16, Nov, 1959.
- James Larer,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85.
-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New York: William Morrow & Co., Inc., 1975.
- J.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50.
- Lester & Kerr, *Historic costume*. Sixth Edition, Bennett Co., Inc., 1967.
- Lynn Schnurnbege,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Publishing, 1991.
- Michae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1977.
- Mial Contini, *Fashion*. New York: Crescent, 1970.
-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1968.
- Ribera Aileen, *Dress & Morality*.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1986.
-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58.
- Wolfgang Bruhn and Maxtilke,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New York: Arch Cape Press, 1988.

## ABSTRACT

### *A Study of Costume Types and Background of Occurrence in the Era of Renaissance*

In fashion there was a move away from the asceticism of the Gothic,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a new spirit at the beginning of the fourteenth centuries, initially in Italy. The new spirit, Humanism applied their interest not to the universal, but to the individual and particular. The Renaissance costume style based on the Humanism was sharp angled and

curvy, and had a grotesque silhouette with the exaggerated and tense deco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ing the background led to the balanced costume style characterized by unique details.

Out of the taste for luxury and beauty grew a new style known as slashing in which seams were left open and colored linings thrust through, or cuts were made in an entire costume and contrasting material puffed out of the cuts.

With the slashes, another element was characterized in the High Renaissance costume style, that was the use of points, or lace, to hold a costume together.

For the masculint costumes, pads became into a fashion and were used for forming the antinatural, artificial, and bulky silhouettes.

The body was distorted and tensed by putting the pads into the sleeves and bodice. The jacket with a full, rounded bodice like a bow, known as peascod belly and haut de chausse, a onion-shaped trunk hose with a codpiece appeared and grew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of Renaissance style.

According to these sociological changes, the view of the beauty based on the human body and in both of men and women, the costume style was changed very much to emphasized their physical beauty, and finally it grew a grotesque style and even more a exposed style that exposed a part of their body.

Those backgrounds as were stated above, can be said to lead to the appearance of the grotesque style in the Renaissance Age.